

K7·그랜저 등 준대형 세단 최대 21% 높게 매입

● 중고차 플랫폼 첫차, 11월 매입시세 급등 순위 발표

‘마지막 처분 적기’ 기아 쏘렌토 4천1만원 거래도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11월 중고차 매입 시세 급등 순위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국산·수입 준대형 세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매년 연말에는 보유 차량을 매각하려는 수요가 급증한다. 해를 넘겨 연식이 변경되면 중고차 판매 시 감가상각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회전을 고려해 12월부터는 연식 변경이 반영된 감가율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해 중고차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실상 지금 시점이 마지막 적기이다.

이에 첫차는 지난 10월1일~31일 사이 온라인 경매장 ‘첫차옥션’에서 내차팔기 서비스로 매입된 중고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매입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모델은 2017년식 기아 올뉴 K7이다. 전월 대비 약 21.3% 높게 매입되면서 최고 1천788만원까지 입찰가

순위	차종	연식	시세 (만 원)	변화율
1위	기아 올뉴 K7	2017	1,107-1,759	+21.3%
2위	벤츠 C-클래스 4세대	2018	1,726-2,920	+17.8%
3위	벤츠 C-클래스 5세대	2017	2,110-3,142	+10.2%
4위	세보제 더 넥스트 스파크	2018	392-600	+10.0%
5위	현대 그랜저 IG	2017	1,170-2,188	+14.9%
6위	기아 레이	2017	551-930	+11.7%

를 형성했다. 최근 가성비 차량 수요가 갈수록 높아져 경쟁 차종인 그랜저 대비 수백만원 저렴하게 거래되는 올 뉴 K7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17년식 현대 그랜저 IG 또한 전월 대비 14.9% 상승해 급등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저 1천170만원에서 최고 2천1

88만원 사이에서 매입됐다. 국산 준대형 세단의 경우 늘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돼 빠른 회전율을 보장한다. 매입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 중고차 딜러의 공격적인 매입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유사한 연식의 수입 준대형 세단 역시 매입 시세가 상승했다. 보증이 종료된 수입차는 통상 높은 감가율이 적용돼 가격 메리트가 커진다. 2017년식 E-클래스는 전월 대비 16.2%, BMW 5시리즈는 8.7% 높은 매입가를 형성했다.

국산 경차의 매입 시세도 크게 올랐다. 인생 첫차를 마련하는 사회 초년생, 영입용 차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스파크와 레이가 유독 강세다. 2018년식 세보제 더 넥스트 스파크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현재 최고 600만원에 매입되고 있다. 2017년식 기아 레이도 그보다 소폭 낮은 11.7% 상승에 그쳤다. 최저 551만원에서 최고 930만원 사이에서 매입됐다.

이외에도 신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 중인 현대와 기아의 SUV 매입가도 오름세다. 기아 쏘렌토 4세대(MQ4)는



10월 외환보유액 42.8억달러 감소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9천만달러로, 9월 말(4천199억7천만달러)보다 42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 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하나은행 유·변조 대응센터. /연합뉴스

한때 신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될 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인 모델이다. 현재 2020년식 쏘렌토 4세대(MQ4)는 전월보다 평균 7.2% 상승한 최저 2천255만원에서 최고 4천1만원 사이에서 매입되

고 있다. 2019년식 더 뉴 카니발과 팔리 세이드는 각각 6.7%, 6.5%대로 올랐다. 이와 관련, 첫차 관계자는 “중고차 매입 가격은 시장 상황, 모델 수요, 차량별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

다”며 “다만 판매 시점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니, 제값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경제일자리재단-광주웹툰콘텐츠협 지역 노동 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광주경제진흥청상생일자리재단(이하 경제일자리재단)은 5일 “광주웹툰콘텐츠협회와 지역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종 노동 캠페인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웹툰(Webtoon) 기반 산업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존중 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복잡한 노동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 지역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을 계획이다.

김현성 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노동 관련 사업의 브랜드화 및 웹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광주은행, 10년째 지역 인재 양성 후원 결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 선정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서림지역아동센터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5일 밝혔다. <사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2015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 내 아동센터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공간을 정돈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만 약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총 45개소에 이르는 노후화된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으로 선정된 서림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 특별활동 등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시설로서, 현재 20여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노후화된 창문으로 단열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 아동들의 학습과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광주은행은 서림지역아동센터의 외부 창문을 모두 교체했으며, 초등 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책걸상을 선물하는 등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차혜영 서림지역아동센터장은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환경개선이 아동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을 통해 우리 사회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

어른들 침수대비 행동요령

- #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 지팡이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년 지원에 앞장서 오고 있고,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4천600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 진학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선정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아동은 총 10명으로, 이들 중 꿈나무 1-4호는 대학 입학 후에도 광주은행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지역 우수인재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은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를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습지도교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부터 매년 30명씩 선정해오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의 부족했던 인력난 해소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봉사 정신을 기르고, 대외 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